

「芙蓉의 相思曲(부용의 상스곡)」의 근대적 성격

김지연*

1. 머리말
2. 「芙蓉의 相思曲」의 근대적 성격
 - 1) 도입부의 변화
 - 2) 사건 전개의 필연성
 - 3) 인간 본성으로서의 애정 추구
 - 4) 근대적 여성 인식 — 자기 지키기
3. 맺음말

* 숙명여대 강사

국문초록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는 구시대의 산물인 고소설과 새로이 등장한 신소설이 공존하며 경쟁했던 시기이다. 출판·인쇄업자의 증가와 출판기술의 발달, 상업적 이익 추구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출판업계의 변화 속에서 고소설의 변모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이 시기 새롭게 창작된 고소설은 농촌 아녀자와 도시노동자에게로까지 확대되어 있던 기존의 고소설 독자층을 수용하고, 변화를 지향하고 있는 독자의 이탈을 막는 동시에, 전대 고소설 양식의 전통을 활용해 창작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상업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변화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애정소설은 여성이 서사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남성의 세계에 편입하기 위해 여성성을 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대 사회가 지니고 있던 여성 인식의 단면을 살피기에 적합하다. 이 논문은 기생과 사족의 결연이라는 익숙한 틀을 이용해 근대소설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신작 애정소설 「芙蓉의 相思曲」을 통해 이 시기 고소설이 지닌 근대적 면모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芙蓉의 相思曲」은 장면, 사건의 전환, 인물의 등장 of 표지가 되는 허두사의 사용, 한시의 이용, 몽유 장치의 이용, 기녀와 사족의 결연이라는 전대 고소설의 양식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반면에 도입부의 변화와 인물·사건 설정의 필연성 부여라는 소설의 구조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애정 추구를 중시함으로써 인간의 본성 추구를 정당화하고 여성의 자아정체성 찾기에 대한 긍정이라는 내용적 측면에서도 근대적 면모를 보여준다.

「芙蓉의 相思曲」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은 「芙蓉의 相思曲」을 비롯한 이 시기의 고소설이 새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그 모습을 바꾸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아울러 그 변화의 중심에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애정 추구와 여성의 자아 찾기에 대한 가치 부여가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핵심어 : 부용의 상사곡, 신작고소설, 애정소설, 근대소설, 여성 인식

1. 머리말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 우리 사회에는 사회 내적 원동력에 의해 요구되고 있는 근대적 변혁의 의지가 외세로부터의 국권 수호의 필요성과 맞물려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던 민중의 각성과 지배세력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조선 사회는 봉건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크고 작은 개혁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19세기 후반 조선 사회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의 침략이 가시화되면서 국권 수호를 위해 유교적 봉건 국가로서의 면모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일본을 통한 문명개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사회의 이러한 분위기는 문학에도 영향을 미쳐 전대 문학의 전통을 철저히 답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시대적 요구를 담기 위한 새로운 문학 형태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방각본의 출판으로 완전한 상업적 유통 체계를 확립하였던 고소설은 1883년 博文局을 통해 鉛活字라는 새로운 인쇄매체가 도입되면서 더욱 넓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근대화의 요구 속에서 고소설이 향유층을 넓힌 것에는 익숙한 것에 대한 독자의 선호가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담기 위해 고소설이 자체적 변모를 이루어냈음에 기인하기도 하였다. 여전히 많은 고소설 작품들이 전시대에 간행된 모습 그대로 유통되거나 활자만을 바꾸어 다시 간행되고 있었지만 새 시대의 목소리를 담은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鉛活字의 도입은 다수의 민영 출판사와 인쇄소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주로 외국 위인의 전기와 주요 저서를 번역하거나 역사서를 편집 간행하였는데, 이러한 인쇄·출판업자의 증가는 자연스레 상업적 이윤 추구를 위한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전속작가를 고용하여 작품을 창작하거나 기존 작품을 개작하는 등 제작기간이 짧고 독자들의 흥

미를 유발할 수 있는 소재 개발에 주목하게 된다. 상업적 흥행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자의 구매욕을 자극해야 했는데 이러한 생산자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가 되었던 것이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애정이다. 남녀의 애정은 상고시대의 설화로부터 현대의 서사물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그것을 문제삼는 양상을 변화해가며 문학 작품의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되어 왔다. 고소설도 예외는 아니어서 「李生窺牆傳」을 필두로 하여 「崔陟傳」, 「周生傳」 등의 한문소설을 비롯하여, 「조웅전」, 「유충렬전」, 「이대봉전」, 「황운전」 대다수의 영웅소설과 가문소설이 男女의 離合과 삼각관계를 진진하게 그렸다. 조선후기 남녀의 애정 성취를 주요 갈등으로 삼고 있는 또 하나의 작품군이 등장하는데, 신분차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혼인하기 어려운 남녀가 애정 욕구를 성취하여 결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 「춘향전」, 「옥단춘전」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작품의 대표적 특징은 여주인공이 기생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인데, 이러한 특징은 1910년대 창작된 「芙蓉의 相思曲」, 「彩鳳感別曲」, 「青年悔心曲」으로 이어진다.

이 논문은 '구시대의 질서가 갖가지 모순을 노정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과정'과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의지'를 지닌 것으로 평가¹⁾되었던 신작 애정소설 가운데 「芙蓉의 相思曲」을 대상으로 하여 20세기 새로이 창작된 고소설에 나타난 근대적 면모를 살피고자 한다.

「芙蓉의 相思曲」은 金履陽(1755~1845)의 소설이었던 성천의 名妓 雲楚 金芙蓉堂을 모델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부용당은 시문에 뛰어났으며 여장부적인 詩情을 노래한 시인으로, 虛名에 뜻이 없어 산천을 유람한 후 문을 굳게 닫고 여생을 보내다가 그를 이해하는 김이양과 시를 지으며 살았다고 한다. 「芙蓉의 相思曲」은 김부용당이 태어나 성장한 성천이 소설 작품 속에서 남자주인공 김유성이 과거에 급제한 뒤 부

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지식산업사, 1986), pp.335~342.

사를 제수받고 부용과 재회하여 정착하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과 소설의 결구에 등장하는 진술에서 부용집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²⁾ 이미 존재한 부용의 일화와 부용집³⁾, 당대 유행하던 잡가 「상사별곡」⁴⁾을 바탕으로 창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⁵⁾

이렇듯 가사와 잡가의 성행과 소설화라는 1910년대의 시대적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등장한 「芙蓉의 相思曲」은 동시대에 창작된 것으로 알려진 애정소설 「彩鳳感別曲」, 「靑年悔心曲」, 「荊山白玉」, 「鸞鳳奇合」, 「雙美奇鳳」 등의 작품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변화의 중간적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어⁶⁾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이전 시기 고소설에서 계승하고 있는 여러 특징과 변화를 피하고 있는 모습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대상으로 삼은 이본은 1913년 新舊書林에서 발행된 89면의 작품으로, 동국대 한국학연구소에서 편찬하여 아세아문화사가 영인한 『활자본 고소설전집』 3권에 실려 있다.

2. 「芙蓉의 相思曲」의 근대적 성격

「芙蓉의 相思曲」은 장면 전환, 사건 전환, 인물 등장 of 표지가 되는 허

-
- 2) “이에 그 소적(事蹟)을 대략 말씀허거니와 용낭의 문장(文章)은 짜로 부용집(芙蓉集)이 잇기로 이 최에 기록(紀錄)지 아니호노라”(「부용의 상소곡」, p.89. 이하 작품의 인용은 면수만을 표시하기로 하며, 띄어쓰기는 논자)
 - 3) 1932년 金鑄信이 편찬한 『芙蓉集』이 전한다.
 - 4) 12가사의 하나로 여러 이본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 인기도를 짐작할 수 있다. 「국악대전집」 「상사별곡」의 해설을 통해 이 노래가 특히 기생들 사이에서 기생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부르던 관습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정재호, 「상사별곡」, 『한국가사문학론』, 집문당, 1982, p.87.)
 - 5) 조광국, 「〈芙蓉相思曲〉 연구—구성적 특징과 갈등 구조 및 사회적 의미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제23집(서울대 국문과, 1987), pp.100~103.
이은숙, 『신작 구소설 연구』(국학자료원, 2000), p.317.
 - 6) 이은숙, 위의 책, 같은 곳.

두사를 사용한다거나,⁷⁾ 漢詩가 주인공의 심리나 사건 전개 of 분위기를 전달하는 중요한 장치로 이용된다는 점, 지식 전달적인 어조로 사건의 배경을 소개하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⁸⁾, 꿈으로 드러나는 부용의 선계 체험을 통해 부용이 추구하는 이상의 단편을 보여주어 몽유록 혹은 몽유록계 소설의 이계 체험의 장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⁹⁾, 주인공의 신분이나 배경의 설정과 남녀주인공의 만남과 이별, 결합 과정이 「춘향전」 등 기녀와 사족의 결연을 다룬 작품의 서사 진행 방식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¹⁰⁾ 등에서 전대 고소설의 특징을 많이 지니고 있다.

7) “공중 | 거름을 멈추고 스면(四面)을 숲히더니 문득 령々(冷々)한 소리 들니 거날”(p.16.)

“이찌 부용이 춘일(春日)이 화창(和暢)함에 거문고를 무릅우히 연소 일곡(一曲)을 알외더니 문득 들압 도화(桃花)가지 우희 々작(喜鵲)이 와 두어 마디 울고 날아가거늘 ... 거문고를 물니치고 초연히 안잔더니 홀연(忽然) 길 건너 술 파는 리파(李婆) | 드러오니”(p.20. 밑줄 논자)

“용낭이 쓰기를 다하고 스스로 슴흠을 이기지 못하며 일로분허 지분(脂粉)을 전폐(全廢)하고 문(門)을 구지 닳아 세사(世事)를 닛고 다만 김공주의 소식(消息)을 기다리더라 각설 김공중 | 용낭을 리별하고 경성(京城)으로 향(向) 홀시 경경일념(耿耿一念)이 용낭을 잊지 못하야”(p.65.)

8) “현판(懸板)에 크게 썼스되 데일강산(第一江山)이라 하였스니 이는 명(明)나라의 린림편수(翰林編修) 주지번(朱之蕃)이 조선(朝鮮)에 사신(使臣)으로 왔다가 이 덩자(亭子)에 올는 풍광(風光)을 구경하고 크게 칭찬(稱讚)하며 현판(懸板)을 만드라 천하데일강산(天下第一江山)이라 쓰려하다가 날으디 우리 중국(中國)의 금릉물색(金陵物色)이 가히 이에 누리지 아니리라 하고...”(p.15.)

9) 부용이 꿈 속에서 경험한 선계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열녀와 미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환상적 분위기를 띤다. 이 장면은 작품의 줄거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여인들을 칭송하는 과정에서 부용의 추구하고 있는 애정 성취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부용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재평가와 절개를 지키므로써 애정을 성취하려는 의지를 인정받게 된다.

10) “이찌 용낭이 뒤 퇴히 올라 공중의 행진(行塵)을 바라보니 텃々(疊疊)한 먼산은 느진 벼를 썩여 푸르렀고 망망(茫茫)한 들밭은 검은 연기에 널녘는디 홀덤(點) 푸른 라귀의 가는 곳이 점々(漸漸) 멀더니 나중에는 그 그림즈도 보이지 아니코 다만 수풀 스이의 시소리는 바람에 지저퍼며 하늘가에 도라가는 구름은 슴흔 기색(氣色)을 썩였는지라 용낭이 자로 라삼을 들어 옥안(玉顏)을 가리우고 눈물 흐름을 씨뎛지 못하니 미향이 백반(百般)으로 위로흠이 집에

그러나 이와 동시에 「芙蓉의 相思曲」은 내용 및 형식적 측면에서 전대 고소설과는 변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도입부의 변화

「芙蓉의 相思曲」 가운데 고소설과 변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작품의 시작 부분에서 보여주는 변화이다. 다음은 각각 「芙蓉의 相思曲」, 「박씨부인전」, 「운영전」의 도입부이다.

차흠다 조선의 승디강산 의론하면 평양이 테일이라 장성일면용々수와 대야 동두덤々산은 고려문장 김황원의 절창이라 룡라도 연곡속에 흥업은 분운하고 모란봉 느진 비에 황화은 란만흔터 대동문 안 흔 모룡이 소도랭락흔 흔 적은 집 후원 별당 붉은 란간 우회 일위미인이 운빈은 삼사하고 써무든 의상에 얼 곱에 지분을 더흔지 아니흔고 초연히 흔 손으로 턱을 괴오고 시름업시 안자시니(p.3.)

화설 리조 인조대왕 시절에 한양성 내북촌 안국방에 일위재상이 잇으되 성은 리오 명은 귀니 어려서부터 학업을 힘써 십세 전에 총명이 과인하여 문무 재력이 일국에 으뜸이라 벼살이 일국재상에 거하여 나라를 충성으로 섬기고

도라와 초향불락흔터니”(p.42.)

“이찌 춘향이 전별거조 찰일 격의 ... 오리정으로 나가 니도령 기다릴 지 ... 술 부어 권홀 격의 시로이 눈물먹음으니 장부의 심장이 다 상한다 ...길이 점점 머러가니 두리 님만 벵긱벵긱하디 음성 서로 못 드르니 나귀를 모라 박석티를 너머서니 요마콤 뵈다가 조마콤 뵈다가 밤지니를 지나서니 가뭇업시 올라간다 술절업시 가는 길의 이전의 쓰던 말이 오날은 어이 지니 춘교의 우는 시는 간장을 바아는 듯 장□의 푸른 버들 무경이도 푸르렀다 한 모롱 두 모롱 얼는 지나 도라갈 지 산이 첩첩 가리오니 한니 업는 한니로다 형용쫓츠 묘연흔니”(동양문고본 「춘향전」, pp.32~40.)

부용과 유성의 이별 장면은 서울로 떠나가는 이몽룡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헤어짐이 다가왔음을 알린 후 서로 술을 나누어 마시고 떠나가는 임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동산을 찾는 등 기생과 양반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고소설에 서의 이별 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백성을 인의로 다사려 위엄과 명망이 사해에 진동하더라 상공이 인후재덕으로
귀자를 두었으되 일흠은 시백이라¹¹⁾(띄어쓰기 논자)

리조세종황제(李朝世宗皇帝)때에 팔대군(八大君)이잇었다 그중에 안평대군
(安平大君)에 일흠은 용(珞)이니 인물이출중하고 재귀(才器)가 탁월(卓越)하
야 팔대군중에도 으뜸의디위를 차지하여 세력이 당세에 데일이다 그의 구택
(舊宅)은 수성궁(壽聖宮)이니 장안에서서쪽 즉인왕산(仁旺山)아래 산천이수
려하고 경개가절승한곳에잇다

사직(社稷)은 인왕산 남쪽으로 갖가히잇고 경복궁(景福宮)은 동서쪽에 위
치를 정하였슴며 그압해는 육조(六曹)가 좌우로 버려잇스니 시가(市街)의 정
제(整齊)함을 가히알것이다 인왕산의 한줄기에 산맥은 위이굴곡(逶迤屈曲)하
야 수성궁에 임하였스니 그리놓지는못하나 올라가서 장안을 구버보면 만성
(滿城)의 데택(第宅)과 시정(市井)에 통구(通衢)를 력력히 가룻킬수잇스니
맞치 실이영킨것도가트며 또는 솟속갓기도하다¹²⁾

평양 대동문 안의 어떤 집 난간에 서 있는 부용을 소개하며 시작되는
「芙蓉의 相思曲」의 도입부는 주인공을 소개하기 위해 그의 조상에 대한
인정기술로 시작되는 傳의 도입부를 계승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소설 작품
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1915년 한성서관에서 연필자로 발간하며
대폭 개편된 것으로 알려진¹³⁾ 「박씨부인전」은 주인공 박씨를 소개하기에
앞서 박씨와 결연하게 될 이시백과 아버지 이귀를 소개하는 것이 더해져
여전히 남녀주인공에 대한 인정기술로 시작되는 대다수 고소설의 도입부
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芙蓉의 相思曲」은 주인공인 부용
과 김유성이 만나게 될 평양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작품을 열고 있

11) 「박씨부인전」(덕흥서림, 1925), p.1.(동국대·한국학연구소, 『활자본 고전소설
전집』 2, 아세아문화사, 1976, p.395.)

12) 「운영전」(영창서관·한흥서림, 1925), p.1.(동국대·한국학연구소, 『활자본 고
전소설전집』 5, 아세아문화사, 1976, p.241.)

13) 김기현, 「조선중기의 역사소설」, 『古小說史의 諸問題』(집문당, 1993), pp.612~
613.

어 「박씨부인전」의 도입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주인공의 조상이 어떤 인물인지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언제인지를 말해주기보다는 앞으로 남겨주인공이 만나게 될 평양의 절승한 경치를 소개하고 외딴 곳에서 소박하게 생활하고 있는 부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芙蓉의 相思曲」의 이러한 도입부는 「李生窺牆傳」을 비롯한 한문소설의 도입부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번째 인용문은 한문본이 원전인 것으로 알려진¹⁴⁾ 대표적인 애정소설 「운영전」의 도입부이다. 「운영전」의 도입부는 운영의 사랑을 방해하는 안평대군과 작품의 배경이 되는 안평대군의 사저 수성궁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수성궁의 설명은 운영과 김진사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암시하는 비극적 정조를 띠는 것으로까지 발전되지는 않고 있다. 이와 달리 「芙蓉의 相思曲」의 도입부는 연기 속에 단풍과 국화꽃이 만개한 평양의 모습과 대조되는 한적한 부용의 처소와 그 곳에서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낡은 옷을 입고 있는 부용의 모습을 대비시킴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부용의 사랑이 일반적인 기생의 그것과 다를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芙蓉의 相思曲」은 작품의 도입부에서 사건 전개의 배경이 되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암시하는 한문소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물의 성격적 특성까지 암시하는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2) 사건의 전개의 필연성

「芙蓉의 相思曲」이 보여주는 또다른 근대소설적 특징은 사건의 필연적 전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다. 「芙蓉의 相思曲」에서는 사건 전개에 필수적인 인물의 관계를 그 인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앞서 미리 설

14) 박일용, 「운영전과 상사동기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국어국문학』 98(국어국문학회, 1987), p.183.

정해 놓음으로써 어디선가 갑자기 등장한 구원자나 원조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 든다. 평양감사 리도중과 최만홍을 징치하는 암행어사 리몽미는 소설 도입부에 주인공 김유성의 가장 친한 벗으로 소개된 인물이다.

문득 한 사람이 드러오니 이는 공자(公子)의 2장 친한 벗이니 성은 리(李)오 일흔은 몽미(夢梅)이니 문장(文章)이 탁월(卓越)하고 지기소방(志氣疏放)해야 범상(凡常)한 인물(人物)이 아닐러라(p.8.)

리몽미는 이미 소설의 도입부에서 문장이 탁월하고 지기가 넘치는 비범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설정으로 인해 후일 그가 암행어사를 제수받고 평양감사와 최만홍을 징치하는 일은 갑작스럽지 않게 된다. 이는 작가가 리몽미가 암행어사로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의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등장인물의 역할 수행에 필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가의 노력은 주점 노파 리씨의 설정에서도 나타난다. 주점의 노파는 평양을 유람하던 김유성이 우연히 목격한 부용과의 만남을 중개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데, 작가는 주점 노파가 부용과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것에 필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그의 동생 리파를 부용의 家奴로 설정하고,¹⁵⁾ 부용이 평소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¹⁶⁾ 보여주는 등의 배려를 하고 있다. 또한 후일 절개를 지키기 위해 강물에 뛰어든 부용을 살려주는 최기념은 유성의 아버지를 모시던 영문집사로 은퇴하여 어부로 지내는 주점 노파의 남편으로 설정된다.¹⁷⁾

15) “홀연(忽然) 길 건너 술파는 리파(李婆) | 드러오니 이 리파는 원리(原來) 부용의 집에 있는 로파(老婆)의 형(兄)이라”(p.20.)

16) “또 리파(李婆)는 로실(老實)한 사람이라 그 말이 망녕되지 아니리니 혼변서로 봄이 무방(無妨)하리라”(p.22.)

17) “로신(老身)의 성(姓)은 리(李)오 가군(家君)의 성명(姓名)은 최기념(崔奇男)이오 여러하기를 영문집사(營門執事)를 돈니우고 전등사도(前等使道) 좌정시(座定時)에도 거행(舉行)하였습더니 나히 늙음으로 퇴사(退仕)하고 일업편주

사건의 필연적 전개를 위한 인물 간의 관계 설정 노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상황을 설정하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이 작품의 남자주인공인 김유성이 부용이 사는 평양을 찾는 것은 평양이 절승한 경계로 이름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유성의 아버지가 평양과 인연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인이 공즈다려 왈 너의 부친(父親)이 십년전(十年前)에 평양감사(平壤監司)로 계실 썬에 리방(吏房)으로 부리든 김달중(金達重)은 위인(爲人)이 관후근실(寬厚勤實)호지라 네 달중(達重)을 차져 그 집에 머므르면 범스(凡事)에 그릴 것이 업슬썬 호노라(p.12.)

김생이 모부인 유씨에게 시야를 넓히기 위해 여행을 다녀올 것을 말하자 모부인이 그의 여행을 허락하는 가운데 김생의 아버지가 평양감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때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김유성의 여행을 돕게 된다. 이러한 설정은 김유성이 평양에 도착한 후 어디에 머무르며 누구의 도움을 받는가에 대한 고민을 없애주며, 동시에 이들이 유성과 부용의 결연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더욱 짜임새 있는 사건 전개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유성이 부용과의 만남을 기약하고 달중의 집으로 돌아온 후의 대목이다.

용낭(蓉娘)이 글을 보고 쾌(快)히 서로 보기를 허락(許諾)함을 널으니 공즈 | 호흔 대희(大喜)이에 리파다려 왈 내 석반후(夕飯後)에 올 썬이니 로랑은 잠간 기다리라 호고 밧비 달중(達重)의 집으로 도라오니 ... 석반(夕飯)을 파(罷)호 후(後) 달중이 공즈를 더(對)호여 왈 쇼덕(小的)은 오늘밤에 입번(入番)이옵기 능(能)히 공즈를 피시지 못호오니 편(便)히 쉬심을 바라노이다 호고 영문(營門)으로 드러가거늘(p.23.)

(一葉片舟)를 사가지고 룡라도(綾羅島)에 가 고기낙가 세월(歲月)을 보니오며 로신(老身)은 술을 파라 심에(生涯)호옵더니 오늘썬 공즈 | 로신(老身)의 집에 왕림(枉臨)호오실 줄 뜻호엿사오리잇가”(p.18.)

부용과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숙소로 돌아온 유성은 김달중과 저녁을 먹은 후 부용의 집에 갈 시기를 모색하게 된다. 「芙蓉의 相思曲」에서는 저녁 식사 후 김달중이 입번을 위해 영문으로 들어가게 설정함으로써 김유성이 부용에게 가기 위해 「춘향전」의 이몽룡과 같이 밤이 깊어 아버지가 잠들기를 기다려야 하는 수고로움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 부용을 꺾절시키려는 신임 평양감사 리도중의 시도는 평소 부용을 사모하던 최만홍에 의해 의도된 것으로 설정된다. 평소 부용을 흠모하던 최만홍이 여러 번 부용을 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여 쌓인 원한을 풀기 위해 신임감사 리도중에게 부용을 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만홍의 원한은 부용과 결연한 것으로 알려진 유성을 해치려고 시도할 만큼 깊은 것이다.¹⁸⁾

여러날만에 동선령(洞仙嶺)에 다스르니 산천(山川)이 험악(險惡)하고 슈목(樹木)이 참천(參天)호지라 령상(嶺上)에 올라 행(行)호더니 반로(半路)에 니르러는 든득 동선관(洞仙館) 안으로서 슈십명한조(數十名漢子) | 각々(各各) 머리에 흰 슈건(手巾)을 동히고 손에 칼과 목봉(木棒)을 들고 니다르며 그중(中) 호 한조(漢子) | 소리를 높히호여 왈 김유성은 닷지말나 너 너를 죽여 나의 김흔 호(恨)을 풀니라 호고 풍우(風雨)갓치 좃차 오거늘 ... 원리(原來) 평양감영(平壤監) 통리중(通引中)에 최만홍(崔萬興)이란 자(者) | 잇서 미양 용낭의 즈식(姿色)을 흠모(欽慕)호야 여러번 스름을 부러 인연(因緣)을 일우기를 청(請)호되 용낭이 굿게 거절(拒絶)호미 앙々지심(怏々之心)을 품엇더니 밋 김공조와 방연(芳緣)을 밋짐을 두고 분호(憤恨)호를 이기지 못호야

18) 유성의 위기 해결이 갑자기 등장한 맹호(猛虎)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천상계의 개입에 의해 주인공이 위기에서 탈출하는 고소설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맹호의 개입은 천상계에 의해 주인공의 성공이 보장받음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최만홍의 원한의 깊이를 보여주기 위한 삽화를 해결하기 위한 관습적 방법으로 선택된 모습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맹호의 등장으로 인해 김유성의 혈통이 천상계와 관련되거나 서술자가 개입해 김유성이 천상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인물임을 강조하는 등의 모습으로 확대되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성중(城中) 무뢰비(無賴輩) 십여인(十餘人)을 모도아 금帛(金帛)을 만히 훔쳐주며 주육(酒肉)을 비불니 먹이고 이에 창금(槍劍)을 각각 몸에 감초고 동선관(洞仙館)에 묻혀와 미복(埋伏) 하였다가 공주의 도라가기를 기다려 살해(殺害)코져 하다가(pp.65~66.)

부용과 결연했다는 이유만으로 김유성을 해하려고 하는 최만홍의 이러한 시도는 다른 한편으로는 雪冤을 위한 최만홍의 필박이 계속될 수 있음과 그 필박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꾀진할 것임을 암시한다. 결국 부용은 최만홍의 추천으로 신입감사에게 존재가 알려지며, 불려 나간 잔치자리에서 스스로 강물에 뛰어들어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죽음을 가장해서야 비로소 자신의 절개를 지킬 수 있게 되는 모진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다. 「芙蓉의 相思曲」은 이렇게 인물과 사건의 긴밀한 짜임을 보여줌으로써 우연적 사건 전개에의 남발이라는 전대 고소설의 혐의를 벗고 있다.

3) 인간 본성으로서의 애정 추구

고소설을 음탕교과서, 처량교과서, 허황교과서로 매도했던¹⁹⁾ 신소설 작가들이 신소설의 주제로 제시한 것이 '구습의 타파'이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적 과제를 앞에 두고 낡은 시대의 것을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신소설이 타파해야 할 구습으로 가장 많이 제시하였던 것은 혼인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중매혼이다. 중매혼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조건이 아닌 애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자각을 근본으로 하여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芙蓉의 相思曲」의 남자주인공 유성이 유람을 하기 위해 모부인에게 허락을 구하는 대목이다.

부사(夫婦)는 인륜(人倫)의 으뜸이요 만복(萬福)의 근원(根源)이라 만일

19) 이혜조, 「자유종」, 『한국신소설전집』(을유문화사, 1969), pp.10~11.

서로 가우(佳偶)를 맞지 못하면 이는 평생(平生)의 업원(業冤)이 되는 바이어늘 조선(朝鮮) 풍속(風俗)이 괴이(怪異)호와 피츠(彼此) 선악(善惡)을 아지못하고 다만 부모(父母)의 명(命)을 좃고 미작(媒妁)의 말만 드러 빅연가귀(百年佳期)를 밋스옴에 그 능히 량성(兩情)이 상합(相合)호야 실가지락(室家之樂)을 일우는 자! 드므온지라 쇼즈(小子)의 생각에는 귀천(貴賤)을 물론(勿論)호고 쇼즈(小子)의 눈으로 규슈(閩秀)의 선악(善惡)을 본 연후에야 가약(佳約)을 덩(定)호려호오니(p.7.)

유성은 자신이 유람을 떠나는 이유를 스스로의 ‘인연 찾기’로 이야기한다. 유성은 부부가 애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무시하는 중매혼으로 인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가 적음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배필을 스스로 고르는 것이 바람직함을 밝힌다. 결혼당사자인 남녀의 의사를 무시한 채 媒妁이 주체가 되는 결혼으로는 참된 室家之樂을 이룰 수 없음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귀천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배필을 찾아보겠다는 이러한 유성의 결심을 들은 모부인이 유성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실행을 허락하고 있다는 점은 이 작품이 창작될 시기에 신분에 구애되지 않는 자유연애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유성이 친구인 리몽미와 당나라의 고사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당(唐)나라 덕종(代宗) 대력년간(大曆年間)에 호 지상(宰相)의 집에 기녀(妓女) | 잇스니 그 일흔은 홍초(紅綃)이라 경성경국지색(傾城傾國之色)이 잇슬 뿐 아니라 지조(志操) | 청고(淸高)호야 평생(平生)에 지귀(知己)를 만나지 아니호면 몸을 가벗야이 허락지 아니호르리라 호더니 그때 마츨 최생(崔生)이라 호는 자! 잇스니 용모(容貌) | 아름답고 문장(文章)이 뛰어난 사람이라 우연(偶然)히 홍초(紅綃)로 더브러 호번 서로 보고 량정(兩情)이 상합(相合)호나 능(能)히 뜻을 일우지 못호야 최생(崔生)이 침식(寢食)을 구폐(俱廢)호고 다만 글을 지어 읊호니 ... 최생의 노즈(奴子) 마룩(磨勒)이라 호는 자(者)는 부르기를 곤륜노(崑崙奴) | 라 호는지라 이 글을 듯고 이에 최생(崔生)의 고(告)호여 왈 로노(老奴) | 맛당히 랑군(郎君)을 위(爲)호야 이 일

을 도모하리라 하고 밤을 타 그 지상(宰相)의 집 십여(十餘)겹 담을 넘어드러가 홍초(紅綃)의 잇는 처소(處所)에 니르러 최성(崔生)의 일을 전(傳)하고 인하여 홍초를 업고 다시 담을 넘어나와 최성으로 하여금 도흔 인연(因緣)을 빚게 하였스니 이는 천고(千古)의 아름다운 일이라 (pp.9~10.)

당나라 재상의 첩인 홍초와의 결합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최생의 일화를 ‘천고의 아름다운 일’이라는 평가를 하는 유성은 이어 자신도 신분을 뛰어넘어 자신의 애정을 추구할 것임을 다짐한다.²⁰⁾ 유성과 친구인 리몽미와의 대화는 유성이 애정 추구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또한 유성은 부용의 실체를 숨기려 하는 주점 노파에게 건네는 말을 통해 신분을 뛰어넘어 애정을 성취하려는 자신의 생각이 사해평등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²¹⁾ 그런데 작품에 등장하는 “조선의 풍속이 괴이하고” 운운하고 “스히지니기형제라” 운운하는 목소리는 신소설의 어투를 많이 닮아 있어 흥미롭다.

애정으로 대표되는 인간본성의 강조는 이 작품에서 신분갈등의 악화로 다시 한번 확인된다. 부용과의 결연을 청하는 유성을 받아들이는 대목에서 기생인 부용은 결혼을 통해 신분 상승을 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²²⁾ 그러나 결말에 이르러서는 정실 부인을 얻도록 남편에게 권고하여 우리를

20) “공주ㅣ 몽미를 보내고 홀로 서안(書案)을 의지하여 생각하되 이 세상(世上)에 만일 홍초(紅綃)와 갓흔 문장(文章)과 조색(姿色)을 겸한 녀자(女子)ㅣ 잇슬진던 그 창기(娼妓)임을 혐의치 아니코 맛당히 백년(百年)을 동락(同樂)하리라”(p.11.)

21) “더 집 주인(主人)을 아라 무익(無益)다함은 내 실(實)로 아지 못하리로다 고인(古人)이 운(云)하되 스히지니기형제(四海之內皆兄弟)라 하였스니 사람을 스귀는 도리(道理) 엇지 로소(老少)와 귀천(貴賤)을 분변(分辨)하리오”(p.18.)

22) “용낭이 칭사(稱謝)왈 공주ㅣ 이렇듯시 천(賤)흔 몸을 슈습(收拾)고져 하시오니 첩이 다시 무슴 말씀으로 그 감격(感激)은음을 다함으며 첩이 비록 상인 지술(相人之術)이 업소으나 공주ㅣ 맛당히 당세일인(當世一人)이 되실지라 첩의 일신(一身)을 의탁(依託)하와 천(賤)흔 일흠을 신설(伸雪)코져 하노이다”(p.35.)

어리둥절하게 만든다.²³⁾ 이는 자칫 부용이 첩에게 자신의 자리를 모두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모진 고초를 당했음에도 너무나 당연하게 용서하고 끌어안음으로써 현모양처의 전통적 여성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사씨남정기」의 사씨를 비롯한 많은 고소설의 여주인공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자칫 이러한 부용의 모습은 봉건적 신분질서에 순응하는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유성을 리판서의 사위를 만듦으로써 “벼살이 정경(正卿)에 니르러 부귀(富貴)를 누리며 용남이 다즈다녀(多子多女)흐”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말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봉건적 신분제도를 역이용했음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부용은 유성에게 리판서의 딸을 정실로 삼도록 함으로써 유성의 사회적 성공을 돕고, 많은 자녀를 생산함으로써 김유성과 돈독한 애정을 유지했음을 과시한다. 유성의 성공을 위해 정실의 자리를 내주었지만 이로 인해 더욱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유성과의 변함없는 애정 관계를 유지함을 보여줌으로써 부용이 김유성과의 결합을 통해 추구한 것이 남편을 통한 자신의 직접적인 신분 상승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부용과 유성의 애정성취는 신분적 지위를 뛰어넘는 인간 본성으로서의 애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품 내에서 두 사람의 신분 차이로 인한 갈등은 약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4) 근대적 여성 인식 — 자기 지키기

부용은 평소 봉건사회 속에서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여자로 태어난 것을 한탄한다. 남일수밖에 없는 남성에게 따라 자신의 생이 좌우되는 사회제도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용은 기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知己’를 만날 때까지 자신을 지키기로

23) “부스의 일행(一行)이 경매(京第)에 도라오에 용남이 승지(承旨)를 권(勸)하야 정실(正室)을 취하라하니 이에 리판서(李判書)의 스희 되고”(pp.88~89.)

결심한다. 부용의 이러한 결심은知己를 만나지 않으면 평생 결혼하지 않고 늙거나 불교에 귀의하여 다음 생을 기약할 만큼 단호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용의 결심은 부용의 신분이 기생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시련을 내정하는 것이다. 춘향의 고난이 이몽룡과의 결연 후에 이몽룡에 대한 정절로 인해 야기되는 것과 달리 부용의 고난은 지기를 만나기 위해 자신을 지키는 과정에서 원한 관계를 맺은 최만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춘향의 자기 지키기가 유교적 지배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에게 강요되었던 ‘貞·烈’의 모습을 가장하고 있다면 부용의 ‘자기 지키기’는 인간으로서의 동지적 배우자를 기다리려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자기 정체성 선언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양(平壤) 부중(府中)의 유명(有名)한 기생(妓生) 부용(芙蓉)이니 영문(營門) 리방(吏房) 추엽황(秋葉潢)의 딸이라 설도(薛濤)의 문장(文章)과 양타진(楊太眞)의 즈식(姿色)이며 녹주(綠珠)의 절기(節概)와 홍불기(紅拂妓)의 지인지감(知人之鑑)을 겸(兼)하였스니 이렵으로 평안도(平安道) 스십이주(四十二州)의 향명(香名)이 자々(藉藉)하니 사람마다 다 사랑함을 마지 아니하고 또 스스로 써히되 류슈(流水)갓흔 빅연광음(百年光陰)이오 풀싯히 이슬갓흔 이 인성(人生)이 어이하여 녀즈(女子)의 몸이 되었는고 하며 미양당(唐)나라 빅락천(白樂天)의 지은 바

타성막작부인신(他生莫作婦人身)하라 타성에는 부인의 몸이 되지 말지어다 빅년고락(百年苦樂)이 유타인(由他人)이라 빅년의 고락이 남에게 달녜 나라

흔는 굴귀(句)를 읊주어려 헛탄(恨歎)함을 내이하며 또 홍상 탄알 내 임의 창기(娼妓)의 몸이 되었스나 어이 로류장화(路柳墻花)의 천(賤)한 형실을 지어 의문헌쇼(倚門獻笑)의 더러운 티도(態度)를 본밧으리오 맛당히 관혜々(關盼々)의 장상셔(張尙書)를 맛남과 의창(義昌)의 진학스(秦學士)를 쓰름과 갖지 못하여 평성(平生)에 지기(知己)를 잊지 못하면 잘하리 공구중(空閨中)에 몸이 늙어 탁문군(卓文君)의 빅두음(白頭吟)을 읊호거나 그러치 아니하면 명산대찰(名山大刹)에 드러가 념주(念珠)를 손으로 고르며 불경(佛經)을 입으로 외와 법천혜월(法天慧月)에 상승(上乘)의 오묘(奧妙)한 도리(道理)를 써다라

타성극락(他生極樂)을 공부(工夫)하리라(pp.5~6.)

부용은 당대의 여성이 지녀야 할 문장과 자색과 절개, 知人之鑑의 모든 덕목을 지닌 이상적 여인상으로 소개된다. 부용이 갖추고 있는 문장과 자색, 절개는 신분은 비록 賤民이나 양반층과 교유하며 생활하였던 조선시대 기녀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知人之鑑이다.

고전서사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의 지인지감은 대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배우자선택 중 특히 '남편고르기(擇夫)'와 관련해 나타나는 경우이다. 평강공주와 온달의 결연담이라 할 수 있는 「온달전」에서 온달을 선택하기 위해 공주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궁에서 쫓겨나는 수난을 감당해야 했던 평강공주나 '내 덕에 산다' 유형의 막내딸이 이에 속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평강공주와 막내 딸은 모두 父權에 도전하였다가 이제까지 생활하였던 자신의 생활터전에서 쫓겨나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주는데, 여성의 지인지감은 여성이 스스로 남편을 선택하는 과정에 등장하게 된다. 이 이야기 유형에서 여성은 지인지감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상실하는 모진 수난을 겪는다는 특징이 있다. 여성의 지인지감이 등장하는 또 다른 양상은 '박씨부인전'의 박씨부인과 같이 공적 영역에서 활약하는 여성의 영웅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등장하는 경우이다. 앞의 경우 여성이 자신의 능력인 지인지감을 실천하기 위해 수난을 경험하는 것과 달리, 이 유형의 이야기에서 지인지감은 여성의 사회적 성공을 장식하는 하나의 흥미적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공적인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여성에게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자질이라 여기던 유약함을 기반으로 한 순종의 미덕보다는 남성이 갖고 있는 자질이 요구되었고, 이때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성의 자질인 지인지감은 미래를 예견하는 先見之明의 한 형태로 등장한다. 여성의 지인지감이 발현되는 두 가지 경우 모두는 지인지감이 여성의 자질로 인식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부용의 경우 지인지감을 이용하여 스스로 배필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첫번째 유형과 유사하나 함께 등장하는 인물들이 부용의 지인지감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이 작품의 창작시기에 이르러 지인지감이 더 이상 남성만의 자질로 인정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남성과 동등한, 때로는 더욱 우수한 자질을 가진 여성의 모습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근대적 인식의 단편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유성이 보낸 한시를 통해 그의 됴됨이를 알아본 부용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연분을 만나기 위해 결연을 시도함으로써 知己를 선택하려는 그의 의지가 확고부동한 것임을 확인케 한다. 다음의 인용에서 부용은 자신의 선택이 경솔하지 않음을 밝히기 위해 중매자인 주점 노파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주점 노파는 부모를 잃고 홀로 생활하는 자신과 함께 생활해온 家奴 리파의 언니로서 오랜 세월 신뢰를 쌓아온 인물인 것이다. 유성과 부용의 만남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작품은 표면적으로 중매자에 대한 신뢰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성과의 만남은 철저히 부용의 의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평소 자신을 “진흙에 못친 옥”²⁴⁾으로 인식하고 있던 부용은 남성에 의해 자신의 평생이 결정되는 사회 제도에서 남성의 선택을 따르는 유순한 여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자발적 의지로 실현가능한 최대한의 선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용량이 보기를 다하고 심니(心內)에 생각하되 이 글 뜻이 조금도 방탕(放蕩)한 의스(意思) | 업고 지조 | 탁월(卓越)하야 내 평생(平生)에 보던 바 처음이오 또 리파(李婆)는 로실(老實)한 사름이라 그 말이 망녕되지 아니리니
 흥번 서로 봄이 무방(無妨)하리라 하고 이에 리파를 향(向)하야 손샤(遜辭)알
 김공즈는 경화귀객(京華貴客)이오 첩(妾)은 청루천품(靑樓賤品)이라 그 보고
 저혹심을 엇지 스양하리오 슈연(雖然)이나 첩이 마참 미(微)양이 잇서 능(能)

히 로낭(老娘)의 집에 나아가지 못하오니 로랑은 첩을 위(爲)하야 김공즈씨 이 스경(事情)을 말슴하와 첩을 후(厚)히 용서(容恕)하시고 혹자(或者) 루디(陋地)에 왕굴(枉屈)케 하심을 바라노라(pp.22~23.)

부용과 유성은 한시를 주고받은 후의 만남에서 번갈아 거문고를 연주하며 서로의 지기임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결연의 통과의례는 많은 고소설 작품에 등장한 바 있지만 대부분이 한시를 주고받거나 서로 혹은 한 사람의 거문고 소리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하나의 방식만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부용과 유성은 결연에 앞서 기존의 고소설에 등장한 통과의례를 모두 사용함으로써 두 사람의 결연이 서로의 정신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매우 고차원적인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 대개의 고소설에서의 이성간의 결연은 여성주인공과 남성주인공의 출중한 외모나 부모의 명성, 유교적 지배이데올로기에 부합되는 덕목을 지닌 여성의 명성 등으로 첫 만남과 동시에 성사된다. 중매혼으로 결연되는 많은 고소설에서의 남녀의 결연은 부모를 비롯한 가문과 두 주인공의 인물됨에 대한 명성으로 성사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의 남녀주인공의 결연은 부용의 외모에 반한 유성에 의해 부모의 동의 없이 시작된다는 점에서는 춘향과 이몽룡의 결연과 유사하나, 유성을 평가하기 위해 부용이 여러 차례 시험하고, 유성이 이를 통과함으로써 결연이 성사된다는 점에서 부용의 자발적 노력이 크게 드러난다고 하겠다. 한편知己를 선택하려는 부용의 의지를 인정하는 유성의 모습은²⁵⁾ 두 사람의 결연이 여성주인공인 부용

25) “고인(古人)이 운(云)하디 스위지기자스(士爲知己者死) | 라 하였스니 내 아싸 낭의 슈선조(水仙操)를 듯고 임의 마음을 허락(許諾)하였스니 이는 지기(知己)를 위(爲)함이오 내 년기(年紀) 이구(二九)에 이제서지 취처(娶妻)치 아니함은 스스로 써하되 슈녀가인(佳人)이 아니면 짝을 즐겨 아니함이러니 이제 낭을 보니 이 진짓 동성상응(同聲相應)이오 동귀상구(同氣相求)며 하물며 낭(娘)은 비록 청루(靑樓)에 오락(誤落)하였스나 그 옥결빙심(玉潔冰心)이 금세(今世)에 더두(對頭)하리 업슴을 내 쏘호 아는 배라 이럼으로 내 이에 니르렀스며”(p.33.)

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유성이 시험에 통과하여 서로의 지기임을 확인한 뒤에도 부용은 결연에 앞서 유성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인지도킨다.

첩은 명도(命途) | 괴구(岐嶇) ㅎ와 어려서 부모(父母)를 여희옵고 몸이 청루(靑樓)에 처(處) ㅎ엿스오니 군즈(君子)의 용접(容接) ㅎ 배 아니오며 인류중(人類中)의 지극(至極)히 천(賤) ㅎ오나 구스 ㅎ 일편심(一片心)은 밋친 바람의 느는 쫓이 측중(廁中)에 썬러짐을 ㅎ(恨) ㅎ오며 진흙에 못친 옥이 광치(光彩)를 일허버리지 아니코져 ㅎ와 탕즈야랑(蕩子冶郎)과 풍류호객(風流豪客)을 열력(閱歷) ㅎ 자 | 만스오디 가바야이 몸을 허락(許諾)지 아니 ㅎ은 스스로 썬 ㅎ되 허서산맹(海誓山盟)을 일인(一人)에게 의탁(依託) ㅎ고 종고금슬(鐘鼓琴瑟)을 빅년(百年)을 기약(期約)코져 ㅎ이러니 썬밭기 공즈를 맛낫스 와 비주(杯酒)로 상권(相勸) ㅎ오며 금곡(琴曲)으로 창화(唱和) ㅎ오니 로류장화(路柳墻花)의 본식(本色)을 면(免)치 못 ㅎ엿스오나 령서일덤이(靈犀一點)이 서로 밋최임은 업지 아닐터니 이제 공즈 | 금옥(金玉) ㅎ은 말슴으로 천(賤) ㅎ 몸을 거두고져 ㅎ시니 비록 육례(六禮)를 갖초와 빅량우귀(百兩于歸)는 바라지 못 ㅎ오나 군즈일언(君子一言)이 천년불기(千年不改) ㅎ신즉 첩이 썬 십지청루(十載靑樓)의 고심(苦心)을 변(變)치 아니 ㅎ와 평생소원(平生所願)을 일울신 ㅎ는이다 ... 공즈 이에 그 손을 잡으며 왓 내 비록 호탕(豪蕩) ㅎ 삼즈(男子)이나 넷글을 넘어 신의(信義)를 드렛느니 어이 탐화광점(貪花狂蝶)의 경박(輕薄) ㅎ 티도(態度)를 본밧아 오월비상(五月飛霜)에 함원(含冤) ㅎ는 썬 뜻을 심각지 아니하리오 이제 ㅎ 말로 덩(定) ㅎ오니 모란봉(牧丹峯)이 길이 푸르렀고 대동강수(大同江水) | 끈허지스 아남과 갓허리라(pp.34~35.)

위의 인용에서 부용은 기생의 신분인 자신에게 知己를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이야기한다. 고아인 여자아이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된 기생이라는 신분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뛰어넘기 위해 부용이 겪어야 했을 고초는 부용이 배우자 선택에 얼마나 강한 의지를 지녀왔는가를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부용은 잔치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남녀의 만남이 신분적으로 우월한 남성이 주도권을 지

닌 일회적 만남이라는 것을 간파했음을 밝힘으로써 부용이 추구하는 결연이 사랑하는 사람과 온전히 평생을 나누는 것임이 드러난다. 또 부용이 추구하는 결연은 六禮라는 혼인의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평생 변치 않는 사랑을 다짐받는 애정의 성취라는 혼인의 실상적 측면 그 자체에 있음을 보여준다. 부용의 이와 같은 태도는 애정 없이 중매혼으로 혼인한 많은 부부가 근대적 교육을 받은 남성과 사회 변화로부터 단절된 여성의 애정 결핍으로 인해 이혼을 경험하게 되는 20세기 초반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관련해 더욱 강력하게 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대저 아내라 하는 것은 내 몸을 짝하는 것인즉 그 품행과 학식과 재능이 나와 같은 자를 구하는 것은 인정에 당연한 일이라, 만일 남자가 신세계의 신 학문을 졸업한 당당한 일표 인물시오, 그 부인되는 여자가 전세상에 구학문으로 ... 소위 가정학문이나 사회지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 당연이 알 일을 하나도 알지 못할 지경이면 그 남편된 자에게 영생 유감과 백년 원수를 면치 못할 터이니 어찌 일가의 화평을 보전하리오, 그러한즉 남자의 애정이 자연 타인에게 옳을 거시니 연즉 연소한 부인의 처량감개한 정회가 전두에 무궁함을 깨다를지니 이는 봉과 닭이 서로 짝을 지을 수 없는 이치라.²⁶⁾

남성의 입장에서 진술된 위의 기사는 진보하고 있는 남성과 발맞추지 못하는 아내를 “영생 유감과 백년 원수”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이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합한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배우자의 진가를 알지 못한 채 아내를 자신의 부속물로 여기고 다른 여성을 편력하는 남성 아래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은 여성의 잠재력을 일깨우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근대적 교육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더 넓은 세계에 눈을 돌리면서 자신의 정체성 찾기에 노력한다. 「芙蓉의 相思曲」에 나타나는 부용의 적극적인 자기 지키기의 노력은 이러

26) 「계국신문」, 1906.11.6.(성균관대 동아시아 유교문화원 교육연구단, 『동아시아와 근대, 여성의 발견』, 청어람미디어, 2004, p.213에서 재인용)

한 시대적 분위기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이러한 각성이 이어지면서 여성은 더 이상 남성에게 결혼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으며, 나아가 이제까지 남성중심의 봉건 사회에서 당연시되었던 통념을 고치는 데 앞장서게 된다. 부용의 선계 체험은 전통사회에서 이루어진 '여성 닷하기'에 대한 비판을 보여준다.

더 낭즈(娘子)는 월(越)나라 저라산(苧羅山) 아리 있던 서시(西施)라 약야 계변(若耶溪邊)에서 비단을 싸더니 월왕구천(越王句踐)이 오(吳)나라의 갑흔 원슈를 잡히려홀 시 범려(范蠡)의 계교를 써 더 낭즈를 취(取)호야 오왕부차(吳王夫差)에 드리니 부차(夫差) | 그 고흘을 깃버호야 관(館)아궁(宮)궁과 고소디(姑蘇臺)를 싸하 주야(晝夜)로 형락(行樂)호며 정스(政事)를 보습히지 아니타가 맛참러 월(越)나라의 멸(滅)호 비 된 이논 오왕(吳王)의 밝지 못함 이오 이 또호 텨수(天數)이라 었지 더 낭즈의 닷시리오 후인(後人)이 알지 못 호고 조롱(嘲弄)호야(pp.45~46.)

위의 인용에는 오나라의 멸망을 西施의 책임으로 돌렸던 역사적 평가에 대한 비판이 나타난다. 오나라의 멸망이 국가의 실제적인 지도자인 오왕의 밝지 못함에 있었음을 밝히고 여성의 미모라는 자극적이고 선정적 측면을 표면에 부각시켰던 통념을 문제 삼는 것이다. 이제까지 문제 이면에 감추어진 남성의 무기력함을 도외시하고 여성의 미모를 표면에 제시함으로써 '예쁘면 얼굴값을 한다.'는 여성의 미모에 대한 이중적이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였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芙蓉의 相思曲」은 여성주인공의 애정추구 과정을 통해 여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봉건적 유교 사회가 가지고 있던 오류를 시정·극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겠다.

3. 맺음말

고소설 가운데 여성인물이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작품군에 여성영웅소설과 애정소설이 있다. 여성영웅소설이 남성의 세계에 개인 여성이 진출하는 이야기라면 애정소설은 애정갈등의 중심에 있는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이다. 두 작품군의 이러한 차이는 여성인물이 드러내는 여성인식의 차이를 노정한다. 남성의 세계인 공적 영역에서 활약하는 많은 여성영웅들이 여성임을 포기하거나 감추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데 비해 애정소설의 여성주인공들은 여성성을 드러냄으로써 남성위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횡포와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두 작품군은 외세로부터의 국권 수호라는 대의명분이 사회내적 근대화의 요구와 맞물려 급속도로 변화를 겪었던 1910년대까지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는데, 특히 새롭게 창작된 애정소설 작품들은 당대 사회가 지니고 있던 여성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출판·인쇄업자의 증가와 출판기술의 발달, 상업적 이익 추구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출판업계의 변화 속에서 신소설과 함께 공존하며 경쟁하였던 이 시기의 고소설은 전대 고소설의 양식을 이용해 창작의 속도를 높이고 고소설에 익숙한 대중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음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사회적 변화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1910년대 창작된 신작 애정소설 「芙蓉의 相思曲」을 통해 이 시기 고소설이 지닌 근대적 성격을 살피고자 하였다.

「芙蓉의 相思曲」은 여전히 허두사, 漢詩, 몽유 장치의 이용, 기생과 선비의 결연이라는 전대 고소설의 양식적 특성을 많은 부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도입부의 변화와 등장 인물간의 관계 설정을 통한 사건 전개의 필연성 부여라는 소설의 구조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애정 추구를 정당화하고 여성의 자아정체성 찾기에 대한 긍정이라는 내용적 측면에서도 근대적 면모를 확인하게 해

주었다.

전시대에 출판된 애정소설 작품들의 이본 대비를 통한 개장 추이 파악과 1910년대 새로이 창작된 애정소설의 비교를 통해서 그 변화의 양상을 파악할 때 온전히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존재한 구활자본 애정소설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박씨부인전」, 덕흥서림, 1925,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2, 아세아문화사, 1976.
「芙蓉의 相思曲」, 신구서림, 1913,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3, 아세아문화사, 1976.
「운영전」, 영창서관·한흥서림, 1925,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5, 아세아문화사, 1976.
「자유종」, 이해조, 『한국신소설전집』, 을유문화사, 1969.
「춘향전」(동양문고본), 김진영 등 편, 『춘향전전집』 5, 박이정, 1997.
- 권순근, 『활자본 고소설의 편폭과 지향』, 보고서, 2000.
김기현, 「조선중기의 역사소설」, 『古小說史의 諸問題』, 집문당, 1993.
박일용, 「운영전과 상사동기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국어국문학』 98, 국어국문학회, 1987.12.
성균관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 『동아시아와 근대, 여성의 발견』, 청어람미디어, 2004.
유태일, 「완판방각소설연구」, 『한국고소설연구』, 이우출판사, 1983.
이능우, 『고소설연구』, 이우출판사, 1975.
이동근, 『조선후기 전 문학 연구』, 태학사, 1994.
이월영 등, 『여성문학의 어제와 오늘』, 태학사, 2001.
이은숙, 「활자본 신작구소설에서의 애정소설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이은숙, 『신작 구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2000.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8.
전광용, 『신소설연구』, 새문사, 1986.

정병현·이유경,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00.

정재호, 『한국가사문학론』, 집문당, 1982.

조광국, 「〈芙蓉相思曲〉 연구—구성적 특징과 갈등 구조 및 사회적 의미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제23집, 서울대 국문과, 1987.

조기준, 「개화기의 서적상들」, 『월간중앙』 30, 중앙일보사, 1970.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86.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대출판부, 1972.

최원식, 『한국근대문학사론』, 창작사, 1986.

Abstract

The Modern Characteristics of 「Buyongsangsagok」

Kim, Ji-Yeon

This dissertation takes aim at finding out modern characteristics of 'Buyongsangsagok' (the story of Buyong's love song) which was using a familiar flame called Gisang and Sunbi.

The time of last 19th to early 20th century is the period of that Kososeol which is product of old date coexisted and competed with Sinsoseol which is that of new era. Kososeol was obliged to change in the variation of publishing world which was increasing publishers and printers and extension of commercial profits pursuit. The Kososeol which was created in that times is reflected the requirement of social changes in the way of that both assimilated existing readers of Kososeol who was extended to country women and urban labors and incorporated readers' requests that satisfied their hunger for change. Especially, love stories are the very thing to observe the section of female identity that had society members of that period because it's female character leads it's narrative development, what is more, it's female character didn't conceal their identity to be include in 'male's world'.

'Buyongsangsagok' has modern characteristics not a structural respect which changes of introduction, necessities of characters and events but which affirmation of female's identity to make much of pursuing love as human's nature. As things turns out, 'Buyongsangsagok' inherited old novel's traditions and accepted readers' new requirements as time passes.

key words : Buyongsangsagok, Sinjakkososeol(Kososeol being created in the era between 19th and 20th century), love story, modern novel, recognition of women

■ 위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0월 20일 심사 완료 후, 11월 3일 게재가 확정되었음.